

음악예술연구 제11권 2호

ISSN 2714-1152

Journal of Musical Arts

September 2021, Vol. 11, No. 2, pp. 25-53

그리그 <발라드>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요소와 민족주의적 요소에 관한 연구

양 상 미

(군산대학교 박사과정)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회

The Musical Arts Association

음악예술연구

Journal of Musical Arts

September 2021 Vol. 11, No. 2, pp. 25-53

그리그 <발라드>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요소와 민족주의적 요소에 관한 연구

양 상 미*

□ 국문초록

그리그(Edvard Grieg, 1843-1907)는 19세기 후반 낭만주의 시대의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민족주의 음악가이다. 그는 당시 유럽에서 행해지던 민족주의 영향을 받아 노르웨이의 전통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여러 작품을 작곡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국 음악의 부흥,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그의 <발라드(Ballade op. 24)>는 노르웨이 민요를 주제로 한 변주곡 형식으로, 그의 작품 중에는 드문 대규모의 피아노 작품이다.

본 논문은 그리그 <발라드>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안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요소와 민족주의적 요소를 이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주제어: 낭만주의, 민족주의, 노르웨이 민속음악, 그리그 발라드

목차

- | | |
|--------------|---------------|
| I. 서론 | 3. <발라드> 작품구조 |
| II. 본론 | III. 결론 |
| 1. 노르웨이 민족주의 | 참고문헌 |
| 2. 그리그의 음악 | |

* 군산대학교 박사과정, ngpp@naver.com

I. 서론

19세기 민족주의 음악은 낭만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민족주의 음악은 자국에 대한 긍지를 바탕으로 민요, 춤곡, 전설에 주목하여 이를 새로운 음악 어법으로 발전시키거나 재편성하여 행해졌는데, 그리그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유럽 음악가들은 자국의 민요와 춤곡, 전설에 대한 수집, 연구, 채보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

그리그(Edvard Grieg, 1843-1941)는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작곡가로, 그의 피아노 작품들은 <4개의 피아노 소품>, <3개의 피아노 소품>, <서정 소곡집>처럼 대부분이 소품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발라드>는 예외로 대규모 피아노 작품에 속한다.

‘발라드’는 본래 ‘춤추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ballare)에서 유래하여 춤곡을 의미했으나, 14세기부터 점차 ‘춤곡’이라는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하였으며 종교적, 역사적, 설화적인 요소를 가진 독창곡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심교회, 2016). 그 후 16세기부터는 이야기하는 성악곡으로 발전되었다가 19세기에 이르러 기악과 성악의 형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기악 형태의 첫 작품은 쇼팽의 <발라드 1번(Ballade Op. 23, No. 1)>에 적용되어 나타났으며 이후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 등 여러 작곡가들에 의해 작곡되었다. 이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모두 ‘발라드’를 자신의 낭만적이고 주관적이며 자유로운 음악 세계를 표현하는 뜻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리그 역시 그의 <발라드>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신만의 주관적인 작품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그의 <발라드>에서는 그가 라이프치히 음악원에서 학습한 독일 낭만주의 음악 어법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전통 민요를 융합한 새로운 시도가 엿보이는데, ‘발라드’임에도 변주곡 형식을 사용하여 각 변주곡마다 낭만주의적이면서 민족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르웨이 민족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그 <발라드>에서 민족주의적인 요소와 낭만주의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노르웨이 민족주의

민족주의 음악은 전통과 자주적 힘이 약한 나라에서 자주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악가들은 보통 민요나 춤곡, 교회음악이나 자국의 역사 등을 활용하여 작곡하였고 이는 오페라와 교향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김미옥 외, 1997).

노르웨이의 민족음악은 1841년 이후 시작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던 노르웨이의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저항하며 자국의 민요와 춤, 문화를 더욱 열망했으며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자주 의식을 키워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노르웨이의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은 자국의 민족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노르웨이에는 왕가와 귀족이 없어 궁정음악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전통음악으로는 교회음악과 농촌지역의 민요가 전부였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고전주의나 낭만주의의 영향을 적게 받아 그들의 전통음악이 잘 보존되어 있기도 하였다(박주연, 2018). 이에 작곡가들은 작품에서 민요나 전통음악의 선율을 모방하여 노르웨이의 민족적 색채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통적인 민요 선율에 화성, 동형진행, 리듬 등의 변화를 주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였으며 이러한 노르웨이 민족주의 작곡가로는 신당(Christian Sinding, 1856-1941), 스벤젠(Johan Severin Svendsen, 1840-1911), 그리그 등이 있다.

2. 그리그의 음악

그리그는 <발라드>를 포함한 여러 작품에서 민요에서 차용한 선율을 사용하였다. 그의 가곡집인 <19개의 민요집> 중 <요람의 노래>는 노르웨이의 전통 자장가 <반술>과 유사한 선율을 보여준다.

<악보 1> 그리그 <요람의 노래> 마디 1-4, 전통 자장가 <반술> 마디 1-4

그리그 <19개의 민요곡집> 요람의 노래



노르웨이 전통 자장가 <반술>



또한 그리그는 대부분 짧은 주제선율을 이용하여 이를 옥타브 이동, 리듬의 변형 등을 통해 동형 진행하는 방식으로 곡을 진행해 나갔는데, <바이올린 소나타 No. 2>에서는 리듬 변형을 이용한 동형진행을 볼 수 있으며, <서정 소곡집 No. 12>에서는 옥타브 이동에 의한 동형진행을 볼 수 있다.

<악보 2>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No. 2> 동형진행

The image displays two systems of musical notation for Grieg's Violin Sonata No. 2. The first system starts at measure 8, with a violin part (top staff) and a piano accompaniment (bottom staff). A boxed-in section in the violin part shows a melodic phrase starting with a *pp* dynamic.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complex texture with chords and triplets, marked with *mf*, *sosten.*, and *pp*. The second system starts at measure 12, with another boxed-in section in the violin part showing a melodic phrase starting with a *p* dynamic.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chords and triplets, marked with *pp* and *poco agitato*.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dynamics, articulation marks, and performance instructions.

<악보 3> 그리그 <서정 소곡집 Op. 38, No. 12> 동형진행

The image shows a single system of musical notation for Grieg's Lyric Pieces Op. 38, No. 12. The tempo is marked *Allegro marcato.* The score consists of a single melodic line on a grand staff. A boxed-in section at the beginning of the piece shows a melodic phrase starting with a *mf* dynamic. The music features a mix of eighth and sixteenth notes with various articulation marks.

그리그 음악의 또 다른 특징은 낭만주의 대표적 음악 어법인 반음계 선율을 빈번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징은 그의 피아노 작품인 <피아노 소나타>와 <서정 소곡집 No. 1>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악보 4> 그리그 <피아노 소나타> 마디 76-81, 반음계적 진행



<악보 5> 그리그 <서정 소곡집 Op. 45, No. 1> 마디 50-54, 반음계적 진행



3. <발라드> 작품구조

그리그 <발라드>의 원제는 <노르웨이 선율에 의한 변주곡 형식의 발라드(Ballade in the Form of Variations on a Norwegian Melody)>로, 대부분 소품들인 그의 작품들 중 드문 대규모의 피아노 작품이며 1876년에 완성되었다. 민요수집가인 린데만(Ludvig Mathias Lindemann, 1812-1887)의 민요집 <북쪽 사람들>에 수록된 노르웨이 민요를 주제로 하고 있다. <악보 6>은 <발라드>의 주제에 해당하는 린데만 민요집의 악보를 다시 그린 악보이다.

<악보 6> 그리그 <발라드> 작품의 민요 주제
(홍순지, 2001, p. 26 재인용)



자유로운 변주곡 형식으로 작곡된 그리그의 <발라드>는 같은 주제의 변주라는 점에서 통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제선율인 민요 선율이 반음계적 화성, 리듬, 장식음 등을 통해 다양하게 변주하는 특징을 가진다.

주제와 14개의 변주곡으로 이루어진 이 곡의 전체적인 구조는 <표 1>과 같다.

<표 1> 그리그 <발라드> 작품구조

구성	마디	박자	조성	빠르기
주제	1-16	3/4	g minor-Bb major-g minor	Andante espressivo
제1 변주	17-33	3/4	g minor	Poco mono Andante
제2 변주	33-49	3/4	g minor	Allegro agitato
제3 변주	49-65	3/4	g minor-Db major-Bb major-g minor	Adagio
제4 변주	66-82	3/4	g minor-Bb major-g minor	Allegro capriccioso
제5 변주	83- 108	3/4	g minor-Bb major-g minor	più lento
제6 변주	108- 125	3/4	g minor-Bb major-g minor	Allegro scherzando
제7 변주	126- 142	3/4	g minor-Bb major-g minor	Allegro
제8 변주	142- 159	3/4	g minor-Bb major-g minor	Lento
제9 변주	159- 186	3/4	g minor	Un poco Andante
제10 변주	187- 214	12/8	g minor	Um poco allegro e alla burla
제11 변주	215- 234	R: 4/4 L: 12/8	Db major-E major-G major	più animato
제12 변주	235- 274	6/8- 4/4	G major	Meno allegro e maestoso
제13 변주	275- 306	3/4	g minor	Allegro furioso
제14 변주	306- 343	3/4	g minor	Prestissimo

(1) 주제

g minor 조성의 A-B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첫 마디 오른손 첫 번째 주제선율의 등장과 함께 왼손은 하행하는 반음계적 진행으로 시작되며, 두 번째 선율은 마디 9에서 마디 12까지 조성이 Bb major로 변화하여 밝은 분위기로 나타나고 양손에서 반진행한다.

마디 12에서 마디 16까지 다시 첫 번째 주제선율이 반복된 후 곡이 마무리된다.

<악보 7> 그리그 <발라드> 주제 마디 1-16

Andante espressivo

하행하는 반음계적 진행

Poco animato

Tempo I A부분 선율과 같다

poco rit. p rit. pp

(2) 제1변주

제1변주는 악상의 큰 변화 없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되며 주제와 같이 도돌이표로 마무리된다. 마디 17에서 마디 18까지 오른손이 맨 아래 음 중심음 G를 유지하고 맨 윗 음이 반음씩 상행하며 하행하는 왼손과 반진행 한다(<악보 8> 참조). 마디 19에서 마디 24까지는 오른손도 하행하는 구조로 왼손과 동형진행되며, 첫 박자의 글리산도와 옥타브 위에서 하행하는 화음은 장식적인 효과를 준다.

왼손 리듬은 4분음표의 반복(♩ ♩ ♩)으로 주제와 같이 하행하는 반음계적 진행이 계속된다. 오른손 리듬은 주제의 마디 7의 셋잇단음표 리듬에서 모방된 처음 쉼표를 포함한 리듬(♩ ♩ ♩)으로 이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며 제2변주의 왼손 리듬(♩ ♩ ♩)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악보 8> 참조).

<악보 8> 그리그 <발라드> 제1변주 마디 17-24

Poco meno Andante, ma molto tranquillo

오른손 위선을 반음계적 상행하며 왼손과 반진행

오른손 왼손 동형진행

pp

m.d.

dimin.

poco riten.

pp

(3) 제2변주

빠른 템포의 변주곡으로 제2변주 역시 반음계적 진행이 특징이며 주제선율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주제 첫마디의 중심음이 제2변주의 오른손 아래 성부에서 테누토로 연주된다(<악보 9> 참조). 제1변주에서 오른손에서 표현되었던 첫 박에 쉼표를 포함한 셋잇단음표 리듬($\text{♩} \text{♩} \text{♩}$)이 제2변주의 왼손에서 마지막 박자에 쉼표를 포함한 리듬($\text{♩} \text{♩} \text{♩}$)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악보 9> 참조). 주제 중심음이 테누토로 표현되었던 마디 33에서 마디 35의 오른손 첫 박자가 마디 36부터 16분쉼표로 변형되고, 왼손의 반음계적 진행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앞서 *p*, *mp*로 표현되던 악상이 *cresc.*를 거쳐 *f*, *ff*까지 발전함으로 제1변주와 대조를 이루며 제1변주에서부터 연결되어온 왼손 리듬($\text{♩} \text{♩} \text{♩}$)이 마디 40부터 큰 도약과 함께 ($\text{♩} \text{♩}$)리듬으로 변화한다(<악보 10> 참조).

<악보 9> 그리그 <발라드> 제2변주의 주제 음 사용

주제 첫마디 (마디 1)

p *molto legato*

주제의 중심음을 사용한 제2변주 도입 (마디 33)

piu tranquillo *rit.* *pp* *p*

<악보 10> 그리그 <발라드> 제2변주 마디 34-41

왼손 반음계적 하행

cresc.

리듬으로 변화

(4) 제3변주

Adagio로 제2변주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이며 양손이 16분음표의 펼침화음으로 잔잔히 흘러간다. 왼손의 맨 위 성부에서 주제를 나타내고 오른손 아래 성부 음과 왼손 위 성부의 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3도를 유지한다(<악보 11> 참조).

<악보 11> 그리그 <발라드> 제3변주 주제선율

Adagio (la sopra melodia molto tenuta)

pp
mf
pp
molto espressivo
pp

오른손 테누토는 곡의 마지막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나 마디 61부터 왼손의 16분음표 진행의 두 번째 박자에 악센트가 등장하므로 당김음의 효과를 주어 두 번째 주제선율의 리듬이 변화하여 등장한 후 마무리된다(<악보 12> 참조).

<악보 12> 그리그 <발라드> 마디 61-65

agitato e stretto
poco a poco a tempo
mf
f
pp
ppp
Allegro capriccioso
lento
p

(5) 제4변주

제3변주와 같은 3/4박자이나 Allegro로 빠르기의 대조를 이룬다.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는 선율이 특징적이며, 특히 오른손의 당김음을 포함한 반음계적 하행이 16분음표의 장식음으로 나타난다. 제4변주의 마디 70에서 나타나는 왼손의 반음계적 상행 부분은 제3변주의 마디 62 왼손 선율의 음가를 늘려서 가져온 것이다(<악보 13> 참조).

<악보 13> 그리그 <발라드> 제3변주와 제4변주의 왼손 반음계적 상행 요소

마디 62-64

마디 70-73

(6) 제5변주

정적인 느낌으로 마디 83-84의 왼손 stretto가 마디 87-88에서 한 옥타브 올라가 반복된다. 이는 마디 91-92에서 양손으로 발전하여 음량이 확대되고, 마디 95-96의 stretto 또한 앞선 마디 91-92에서 나타난 stretto가 한 옥타브 위에서 동형 진행된다(<악보 14> 참조).

<악보 14> 그리그 <발라드> 제5변주 마디 83-98

Più lento
recitando stretto
ritard.
a tempo
semplice
 동형진행

f
stretto
rit.
p
a tempo
 동형진행

양손진행, 음량의 확대

f
stretto
rit.
p
a tempo
 4개의 셋인음표가 중심

f
stretto
ritenz.
p
a tempo

마디 103-104는 마디 91-92와 같은 음이지만 첫 박에 16분섬표를 추가하여 엇박으로 변형시켰으며, 마디 105-106은 마디 85-86을 그대로 반복하며 곡을 마친다(<악보 15> 참조).

<악보 15> 그리그 <발라드> 제5변주 마디 99-108

(7) 제6변주

시작하는 화음이 주제 첫 마디와 같다.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 ♪ ♫) 리듬으로 리듬이 지속된다. 오른손의 리듬과 화음을 왼손이 따라오는 구조이나 마디 112부터 순서가 바뀌어 왼손이 먼저 나오고 오른손이 따라오는 구조로 변화한다. 양손의 부점 리듬으로 춤곡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첫 음이 짧은 32분음표로 꾸밈음처럼 표현되어 장식음의 효과를 가진다(<악보 16> 참조).

<악보 16> 그리그 <발라드> 제6변주 마디 108-115

Allegro scherzando

p *cresc.* *f* *p* *f* *p*

(8) 제7변주

앞선 제6변주의 리듬을 스타카토 주법을 사용한 16분음표의 반복으로 펼쳐놓았다. *p*로 시작해 *ff*까지 악상의 다이내믹한 발전이 돋보인다(<악보 17> 참조).

<악보 17> 그리그 <발라드> 제7변주 마디 126-130

p *f* *ff* *p* *f* *f* *f*

f sempre stacc.

마디 134부터 137까지 왼손의 음형이 오른손과 다르게 변화하나 마디 138부터 다시 처음과 같이 양손이 같은 음형으로 반복된다. 양손이 하행하는 진행이며 반음계적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악보 18> 참조).

<악보 18> 그리그 <발라드> 제7변주 마디 134-142

(9) 제8변주

제7변주의 펼침화음과 대조적으로 화음을 수직적으로 사용하여 한결 웅장함을 주는 변주이다. 오른손 가장 위 성부와 왼손 가장 아래 성부가 주제선율을 함께 연주해 선율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왼손 두 옥타브 아래에서 엇박으로 선율의 중심음 (Bb-G-F#-G)이 연주된다. 이 중심음은 마디 146부터 오른손의 옥타브 위에서도 등장해 왼손과 함께 연주되어 음량의 확대 효과를 가져온다(<악보 19> 참조).

<악보 19> 그리그 <발라드> 제8변주 마디 142-149, 주제선율

(10) 제9변주

느린 템포의 곡으로 반음계적 진행이 도드라지게 드러난다.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는 세 음(D-C#-C, Bb-A-G#)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셈여림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글리산도는 여리지만 풍부한 음량의 장식음 역할을 한다(<악보 20> 참조).

<악보 20> 그리그 <발라드> 제9변주 마디 159-164, 중심 선율

마디 172-178은 마디 159-164의 중심 선율에 옥타브를 활용하여 음량을 확대하였고, 왼손에서는 하행하는 반음계적 진행이 나타

난다. 전체적으로 짧은 프레이즈를 옥타브와 반음계적 진행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악보 21> 참조).

<악보 21> 그리그 <발라드> 제9변주 마디 170-178

(11) 제10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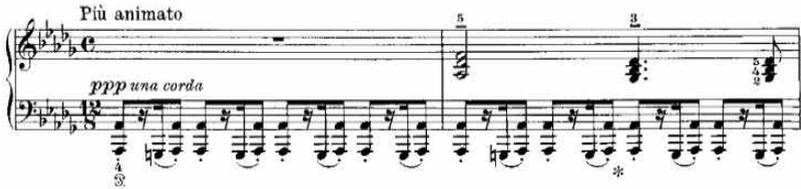
4박자로 변주되었으며 빠른 리듬으로 민속춤곡의 분위기를 나타낸 곡이다. 제10변주의 주된 리듬(♩ ♪ ♩ ♩)이 제11변주까지 이어지며 마디 210-214까지 반음계적 상행하는 구조를 가지는데, 상행하는 음의 길이가 마디 210에서는 4박, 마디 211에서는 2박, 마디 212에서는 1박, 마디 213-214에서는 반박으로 짧아지며 자연스러운 *accelerando*의 효과를 보여준다(<악보 22> 참조).

<악보 22> 그리그 <발라드> 제10변주 마디 209-214, 상행하는 음

(12) 제11변주

제10변주와 마찬가지로 민속춤곡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주계 조성(g minor)과 다른 조성(Db major)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변주곡이다. 제10변주에서 사용된 리듬형(♩ ♪ ♩ ♩)이 왼손 저음부로 이동하여 연결되며 Db major의 딸림음인 Ab음이 지속되면서 제11변주가 시작된다(<악보 23> 참조).

<악보 23> 그리그 <발라드> 제11변주 마디 215-216, 왼손 리듬



마디 224부터 왼손의 리듬형이 연속되는 16분음표로 변화하고 오른손에서 주체선율이 나타난다. 이 주체선율은 이후 연이어 등장하는 (* ♩ ♩)리듬과 함께 반음씩 상행하는 구조를 가진다(<악보 24> 참조).

<악보 24> 그리그 <발라드> 제11변주 마디 223-228



(13) 제12변주

웅장한 분위기의 수직적 화음으로 시작되는 변주곡으로 제10변주에서의 춤곡 리듬(♩ ♩ ♩)이 제11변주에서 왼손으로, 제12변주에서 다시 양손으로 나타난다. 중심음이 첫 박에서 나타나며 주체선율의 리듬이 중심음 뒤에 나오는 부점 리듬(♩ ♩ ♩)으로 변형되

어 등장한다. 이 곡에서는 반응계적 진행 없이 주제선율의 화음이 옥타브로 확대되고 리듬이 변형되어 표현되었다(<악보 25> 참조).

<악보 25> 그리그 <발라드> 제12변주 마디 235-245, 오른손 주
제선율

Meno Allegro e maestoso
ff con tutta forza

마디 273-274에서는 G Major와 g minor의 딸림7화음(dominant 7th chord)이 *p*에서 *ff*까지의 셈여림을 거쳐 빠르고 화려하게 상행한다. 그리고 g minor의 제13변주로 연결된다(<악보 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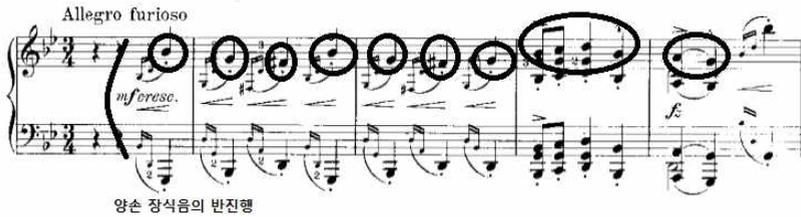
<악보 26> 그리그 <발라드> 제12변주 마디 273-274

ff
p cresc. molto e strepitoso
ff

(14) 제13변주

주제와 같이 g minor의 조성과 3/4박자로 시작하는 변주곡이다. 오른손 주제선율을 중심으로 양손에 화려한 장식음이 반 진행한다. 이 장식음을 제외하면 단순한 리듬(J J J)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제선율이 옥타브를 넘나들며 반복된다(<악보 2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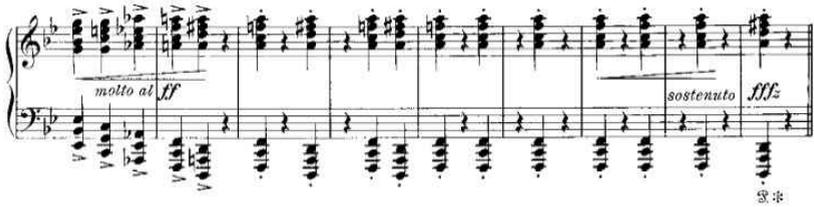
<악보 27> 그리그 <발라드> 제13변주 마디 275-279, 주제선율과 장식음의 반진행



마디 287부터 왼손에 주제선율이 화음으로 등장하며, 이 주제선율은 291마디에서 한 옥타브 위로 반복된다(<악보 28> 참조).

<악보 28> 그리그 <발라드> 제13변주 마디 284-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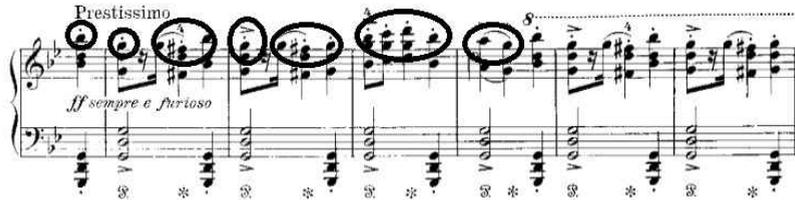




(15) 제14변주

매우 빠르고 음량이 풍부한 수직적 화음 진행이며 주제선율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오른손에서 주제가 옥타브로 나오는 동안, 왼손에서도 g minor 화음이 옥타브로 상, 하행하며 반복된다(<악보 29> 참조).

<악보 29> 그리그 <발라드> 제14변주 마디 306-312



마디 314부터 왼손에서 주제선율이 나타난다. 마디 314-315에서 나타나는 Bb-A-G 음이 모방 되어 오른손에서 1옥타브씩 상행하며 진행되고, 왼손에서는 같은 음이 4분음표에서 8분음표로 짧아진 뒤 Bb음이 빠진 A-G 음의 형태로 4분음표-8분음표-셋잇단음표-트레몰로로 음가가 점점 짧아지며 accelerando의 효과를 준다. 이는 제10변주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accelerando를 표현한 방식과 같다(<악보 30> 참조).

<악보 30> 그리그 <발라드> 제14번주 마디 313-328

1 옥타브씩 상행

원손 주제선율 시작

① 4분음표로 시작

1 옥타브씩 상행

molto pesante e furioso

② 8분음표로 나뉘어짐

③ Bb 음 제외 한 음들

8분음표로 표현

④ 셋잇단음표로 나뉘어짐

trem.

⑤ 트레몰로 표현

이후 긴 음가의 E \flat 음을 거쳐 g minor의 dominant인 D음으로 베이스 성부가 진행하고, 뒤이어 주제의 앞 8마디가 반복되며 곡이 마무리된다(<악보 31> 참조).

<악보 31> 그리그 <발라드> 제14번주 마디 329-343

5
Andante espressivo
ff
lunga
Thema
il canto ben tenuto
p molto legato
poco a poco riten.
pp
53

III. 결론

19세기는 낭만주의 예술 사조가 주를 이루면서 민족주의의 열풍 또한 일어난 시기이다. 그리그는 이러한 시대 상황의 영향을 받아 낭만주의 음악 어법을 바탕으로 민족적 색채를 표현한 작품을 주로 작곡하였다.

<발라드>는 그의 드문 대규모 피아노 작품으로, 낭만주의적 요소를 바탕으로 민요적 선율을 사용한 주제와 14개의 변주곡으로 이루어진 그리그의 새로운 표현양식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지금까지 그리그의 <발라드>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 자유로운 형식, 반음계적 진행, 화려한 장식음, 폭넓은 셈여림 및 음악적 표현 등의 낭만주의적 요소가 사용됨과 동시에 민요 선율을 주제로 하는 민족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그리그의 <발라드>는 낭만주의 시대 작품으로 그리그의 민족주의적 색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피아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미옥, 오희숙, 홍정수 (1997). **두길 서양음악사**. 서울: 나담출판사.

논문

박주연 (2018). 그리그(E. H. Grieg)의 <여섯개의 노래> Op. 48에 나타난
노르웨이 민속음악적 요소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교회 (2016). F. Liszt의 <Ballade No. 2 in b minor>에 관한 이해. 단국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홍순지 (2001). Edvard Grieg의 Ballade Op. 24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악보

Grieg, E. (1902). *Ballade op. 24*. Ed. Hermann, K. In *Klavierwerke*.
Band II. Leipzig: C. F. Peters.

_____. (1902). *Lyrische Stücke*. Ed. Hermann, K. In *Klavierwerke*
Lyrische Stücke, Band I. Leipzig: C. F. Peters.

_____. (1917). *Pinano Sonata op. 7*. Ed. Charles, D. In *Klavierwerke*.
New York: The University Society.

_____. (1979). *Violin Sonata no. 2*. Ed. Finn, B. In *Samlede verker*,
Band 8. Frankfurt: C. F. Peters.

□ Abstract

The Study on the Romantic and Nationalistic Elements in Grieg's *Ballade*

Sang Mi Ya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Edvard Grieg(1843 - 1907) is a representative Norwegian nationalist musician of the Romantic era in the late 19th century. Under the influence of nationalism in Europe at the time, he composed a number of pieces using traditional Norwegian elements, through which he made efforts to revive and develop the music of his nation.

Grieg's *Ballade Op. 24* is in the form of variations on a Norwegian folk song,, and it was a rare large-scale piece for piano among his work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tructure of Grieg's *Ballade Op. 24* and to understand the romantic and nationalistic elements that appear in the piece.

Key Words: Romanticism, Nationalism, Norwegian Folk Music, Grieg's Ballade

투고일: 2021년 7월 6일

수정본 제출일: 2021년 8월 9일

게재 확정일: 2021년 8월 15일